

‘홍재일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기행현, 1866년부터 45년간 일기
동학혁명 전후 물가 변동·기후 등
지역사회 변화상·역사 등 기록
정읍시, 자료 발굴·홍보 지원



동학농민혁명 전후 사회상을 담은 '홍재일기'.

(정읍시 제공)

국가유산청이 지난 13일자로 정읍시 입암면 솔티도예공방의 방장 기근씨가 소장하고 있는 '홍재일기' 7책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홍재일기'는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백산대회의 일자를 1894년 음력 3월 26일로 기록했고 1866~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이전 약 30년간의 물가변동, 기온, 세금 등과 관련된 기록과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과 역사적 사건을 세밀하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奇幸鉉·족보명 奇泰鉉·1843~?)은 본관이 행주이며 고봉 기대승의 형인 기대립-기효분(奇孝芬)-기방현으로 이어지는 가계이다. 초명은 행현(幸鉉), 자는 성첨(聖鎭)이고 족보명은 기대현(奇泰鉉), 홍재(鴻齋), 도해재(道海齋)는 그의 호다.

그는 1866년 3월 1일부터 1911년 12월 31일까지 약 45년간 일기를 썼으며 1책에는 도해재일기(道海齋日記)(1866~1867), 2책부터 7책까지는 '홍재일기(鴻齋日記)'(1868~1911)라는 제목을

붙였다. 2012년 입암면 솔티도예공방에서 확인된 '홍재일기'는 2017년이 되어서 비로소 전체 탈초가 이뤄졌고 '국역 홍재일기'(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2)가 출간됐다. 이후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등 학술성고가 뛰어나다.

정읍시는 홍재일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자료발굴과 연구 지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및 근대로의 전환 과정을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홍보·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홍재일기의 소장자 기근씨는 "홍재일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까지 애쓰신 김철배 박사(임실군청 학예연구사)와 수많은 연구자, 정읍시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홍재일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사에 큰 획을 그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동학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세계기록유산에 추가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2년간 39억 투입 빈집 매입

농촌유학시설·도시특화 재생사업·임대사업 등 활용

남원시가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을 위해 빈집 매입에 나선다.

남원시는 지난달부터 관내 빈집 매도 희망자를 모집했고 현재 1차 접수건에 대해 감정평가의뢰한 상태다.

2년 간 추진되는 빈집 매입 사업에는 총 39억 2000만원(2024년 20억2000만원, 2025년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매입 신청된 빈집은 1차 서류검토를 거쳐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평가액 기준으로 협의 및 매매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입 빈집은 농촌유학시설, 도시특화 재생사업, 매입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노후도가 심각한 빈집의 경우 철거 후 주차장, 공원, 부지조성(쉼터 등)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빈집 매입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 각종 연계사업 추진에 발판이 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교육청-8개 대학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학·교육청 간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 체계 마련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24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여름방학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8개 대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대학 여름방학 공동교육 과정 실무 협약식'〈사진도 가졌다.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 호남대 등 8개 대학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 고교교육 과정 담당자가 참석해 다양한 강과 개설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고교학점제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것과 달리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 수강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정

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효선 전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대학들과 촘촘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전북의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농촌 인력난 해소

'농활원정대'가 간다

대학생 500여명 봉사활동 연계

고창군로컬JOB센터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역 농촌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활원정대'를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전주대학교(4박5일) 학생 306명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외대, 전남대학교 등 전국 각지의 대학 및 기관 등 참여자 500여명의 농촌봉사활동을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농활원정대는 신청접수일 이전부터 전국 각지의 대학단체에서 유선연락이 오는 등 운영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서 로컬JOB센터는 지난해 460여명의 기관 및 대학생 단체를 농활에 연계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양치영 고창군로컬JOB센터장은 "영농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촌봉사활동 연계로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단비가 됐다"며 "농활 참여 학생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연계 고리가 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우수종돈 축산농가에 보급



두당 최대 120만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양돈 산업에 발전을 위해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은 유전능력이 확인된 종돈(두목, 랜드레이스, 요크셔) 구입을 지원해 우수한 정액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돼지 정액 등 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로 종돈 구입 후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종돈 총 19두를 지원한다.

우수종돈의 분양은 종돈 번식업체에서 이뤄지고, 90kg 도말일령, 등지방두께, 일당 증체량 등 산육능력을 검정해 인공수정센터로 보급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인공수정센터로 입식된 종돈 명세와 혈통 등록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선발지수(개체능력)에 따라 두당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양돈농가가 우량 정액을 공급받아 보다 우수한 돼지를 생산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스탬프 투어'로 정읍에서 추억 만들기

동학혁명 문화권 8개소 등 27곳...8개 이상이면 특산물 등 선물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전자지도 앱을 활용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시작된 스탬프투어는 내장산 레저휴양권 7개소, 동학농민혁명 문화권 8개소, 정읍시 문화권 5개소, 태산선비 문화권 6개소에 생고을시장까지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스탬프투어 참여를 위해서는 모바일 앱(정읍시 전자지도)을 내려받거나 정읍 전자지도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스탬프투어 운영 장소를 방문하면 GPS(위치정보) 인식으로 도장이 자동으로 찍힌다.

투어 운영 장소에서 8개 이상의 스탬프를 모으면 참가자 중 누구나 지역 특산품인 귀리(2.5kg)

또는 지역의 소문난 맛집 '양자강', '신가내국밥', '보안식당'의 밀키트 중 하나를 '네이버 폼'에서 배송 신청할 수 있다.

여행 중 필수 해시태그인 '정읍스탬프투어'를 태그해 SNS에 업로드한 관광객에게도 관광엽서가 추가로 지급된다.

단 기념품 지급은 연 1회로 제한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여행의 추억을 집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품을 준비했다"며 "스탬프투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정읍의 관광지도 사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